

경매시장도 수도권-지방 양극화

지난해 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인해 전국 법원 경매건수가 크게 줄어든 반면 광주·전남지역은 5만여건의 물건이 경매로 내놓리는 등 경매시장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지난 2002년 이후 토지와 숙박시설의 경매 물건이 급증세를 보이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와 숙박업계 등의 자금난을 반영하고 있다.

7일 법원경매정보입체 디지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경매에 부처진 물건은 총 42만8천667건으로 1년 전인 2005년 48만6천402건보다 11.9%(5만7천735건) 감소했다. 이

수도권 집값 급등·개발호재 힘입어 21% 감소

광주·전남은 토지·숙박업소 등 5만건 쏟아져

가운데 수도권은 13만9천900건으로 지난해 17만6천900건보다 21%(3만7천건)나 급감했다.

이처럼 수도권의 경매 물건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집값 급등으로 인해 그만큼 대출 가능액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당수 채무자들이 늘어난 대출 금액 만큼 부채를 일부 또는 전액 상환함으로써 경매 취하나 변경 등의 사례가 잇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수도권의 재개발, 재

건축, 뉴타운 등의 개발 호재로 인해 경매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연립·다세대 주택은 1년새 34%(3만8천453건) 감소하면서 '집값 광풍'을 실감케 했다.

반면 광주·전남은 지난해 총 4만9천692건이 경매에 부처져 경기침체의 골을 실감케 했다. 이는 2005년 4만9천373건보다 0.6%(319건) 증가한 것으로 2004년 5만1천766건 이후 3년째 매년 5만여건의 물건이 경매시

장에 쏟아진 것이다. 특히 광주·전남은 토지와 숙박업소의 경매 건수가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토지의 경우 지난해 2만1천879건이 경매에 부처져 2005년 1만8천894건보다 13%(2천985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남은 2만425건이 입찰되면서 1년새 16%(2천742건)나 증가하는 등 정부의 토지거래 억제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으로 인한 토지소유자들의 자금난을 반영하고 있다.

숙박업소도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경매에 부처진 숙박업소는 총 601건에 달했다. 이는 2005년 506건보다

■ 광주·전남 경매물건 추이 (단위:건)

구분	2002년	2005년	2006년
아파트	6,853	8,878	9,364
연립/다세대	653	2,408	1,836
주택	3,772	7,606	6,555
근린	3,141	7,267	6,070
업무시설	194	459	649
공장	605	1,075	874
숙박시설	72	506	601
토지	15,509	18,894	21,379
기타부동산	561	1,328	1,432
기타	483	952	932
합계	31,843	49,373	49,692

19%(95건) 늘어난 것으로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전인 2003년 141건보다 4배 이상 급증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경매 양극화는 낙찰률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의 낙찰률은 39.7%로 2005년 35%보다 4.7%p 상승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매 열기를 반영했다. 반면 광주·전남 아파트의 낙찰률은 2005년 39.6%에서 지난해 36.7%로 2.9%p 떨어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국민은행 호남본부 쌍두체제로

2개 본부로 직제 개편 南 본부장에 박찬본씨 北 본부장에 김종범씨



〈박찬본씨〉 〈김종범씨〉

KB국민은행이 직제개편을 통해 호남지역본부 2개 지역본부로 세분화했다. 국민은행은 최근 호남지역본부를 광주·서구·남구와 전남, 제주를 관할하는 '호남남'과 광주·북구·광안·전북을 담당하는 '호남북' 본부로 나눴다고 7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에 따라 지난 3일자로 박찬본(52)씨를 호남남 본

부장에, 김종범(51)씨를 호남북 본부장에 임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직제 개편은 영업력 강화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각 지역본부가 관할하는 점포수가 60개에서 30개로 줄어들게 돼 현장 밀착경영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중소조합 경쟁입찰 참여 허용

제품구매 촉진법 개정

중소기업청은 협동조합의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참여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7일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합동조합에도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 자격을 부여, 영세중소기업의 공동수주 기회를 확대했다.

경쟁입찰 외에도 품목의 특성을 고려해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이나 희망수량입찰 등 별도의 계약 방

법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또 2천만원 미만의 소액 수의계약 체결시 관련조항이 적절할 중소기업을 추천할 수 있게 했으며,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품목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품목의 지정효력을 3년으로 정해 입찰에서 구매까지 안정적으로 진행토록 했다. 이밖에 생산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만 경쟁입찰에 참여시키는 직접생산확인제도를 마련, 직접생산능력 보유 여부를 확인받은 뒤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한해 공공구매 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보혜 사랑나눔 봉사

보혜양조의 '젊은 잎새 사랑나눔' 4기 봉사단 500여명이 지난 6일 보혜광주사무소에서 발달대를 갖고 독거노인 등을 위한 본격 봉사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발달대식광주 사랑의 쉼터에서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을 했으며, 오는 6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보혜양조 제공〉

중기 정책자금 올 2조8천억원 쏟아

오늘부터 희망기업 접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장순호)은 전국적으로 2조8천억원 규모의 '2007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이 확정·공고됨에 따라 8일부터 희망 기업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정책자금의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4.75% 수준이고,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등으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기간으로 지원된다.

올해 정책자금 운용계획 중 주요 개편내용으로는 우선 정책자금 구조를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개편해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활용도 제고에 중점을 뒀다. 한편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342개 업체에 1천615억원의 정책자금이 지원된 바 있다. 문의 (062)360-9141.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양제철 '물 분해가스' 이용 절단 설비 도입

생산성 향상·원가절감 효과

광양제철소 제강부가 최근 고철을 모아두는 스크랩 야드 내에 '물 분해가스'를 이용한 절단 설비를 도입, 생산성 향상은 물론 원가절감효과를 보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설비는 쇳물을 고체

상태로 굳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고된 내화물과 쇳물덩어리는 물론 대가스를 이용한 절단 설비를 도입, 생산성 향상은 물론 원가절감효과를 보고 있다.

물 분해가스는 물을 전기 분해했을

때 음극과 양극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소와 산소의 혼합가스인 제3의 가스를 말하는데 브라운 가스(Brown's Gas)라고도 한다. 물 분해가스를 이용하면 3초 이내에 대상물의 온도를 2,000℃ 이상으로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기존 방식과 대비해 고효율을 자랑한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이번 설비 도입으로 작업환경 개선과 함께 수역원의 원가절감과 생산성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비축용 쌀 40kg 포대당 특등급 5만50원

정부 매입가 확정

정부의 공공비축용 쌀 매입가격이 우선 지급급보다 40kg 1포대당 2천400~2천10원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농림부는 작년 9월 20일부터 사들인 공공비축용 쌀의 매입가격을 40kg 1포대당 ▲특등급 5만50원 ▲1등급 4만8천450원 ▲2등급 4만6천300원 ▲

3등급 4만1천210원으로 각각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매입시점에 적용된 우선 지급 기준보다 특등급은 2천910원, 1등급은 2천820원, 2등급은 2천690원, 3등급은 2천400원, 3등급은 930원 오른 것이다. 건조되지 않은 상태로 매입하는 산물쌀의 경우 포장비용 670원 만큼 매입가가 낮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호기심 가득한 눈이 모이는 곳!
호기심 가득한 손을 기다리는 곳!
- 2007 동물이카데미

이제는 손 잡고 이카데미를 즐기세요!
이카데미는 어린이들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놀이입니다.
이카데미는 어린이들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놀이입니다.
이카데미는 어린이들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놀이입니다.

이카데미의 특징

- 1. 호기심을 자극하는 놀이
- 2. 상상력을 자극하는 놀이
- 3. 창의력을 자극하는 놀이
- 4. 협동심을 자극하는 놀이
- 5. 인내심을 자극하는 놀이
- 6. 집중력을 자극하는 놀이
- 7. 기억력을 자극하는 놀이
- 8. 논리력을 자극하는 놀이
- 9. 의사소통력을 자극하는 놀이
- 10. 문제해결력을 자극하는 놀이

이카데미는 어린이들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놀이입니다.
이카데미는 어린이들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놀이입니다.
이카데미는 어린이들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놀이입니다.